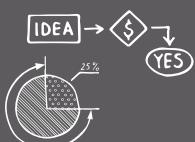




[3672호] 2019년 6월 3일 (월)



신한생각



KOSPI
2,041.74 (+0.14%)

KOSDAQ
696.47 (+1.04%)

KOSPI200선물
263.50 (-0.30%)

원/달러 환율
1,190.90 (+2.10원)

국고 3년 금리
1.587 (-3.9bp)

Top down

전략 생각

(월간전망) 반등을 기대한다 [곽현수]

Global Sentinel

Post - 유럽 의회 선거 [한윤지, 윤창용]

한국 5월 수출입

무역 분쟁 유단을 맞은 수출 [하건형]

채권 전략 - 5월 금통위

더 지켜보고 판단하자 [김상훈]

B.log

#19-18 국내채권 시장, 외국인 영향력 확대 [김상훈]

이슈 생각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주 탐색 [김다미, 최유준]

포트폴리오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SK하이닉스, 씨젠, 도이치모터스,
오이솔루션, 에이치엘사이언스

6월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

6월 ETF 포트폴리오

Bottom up

배기달의 헬스케어 이야기

#19-76 쑥쑥 크는 바이오시밀러 시장 [배기달]

▣ 차트릴레이 - Top down / Bottom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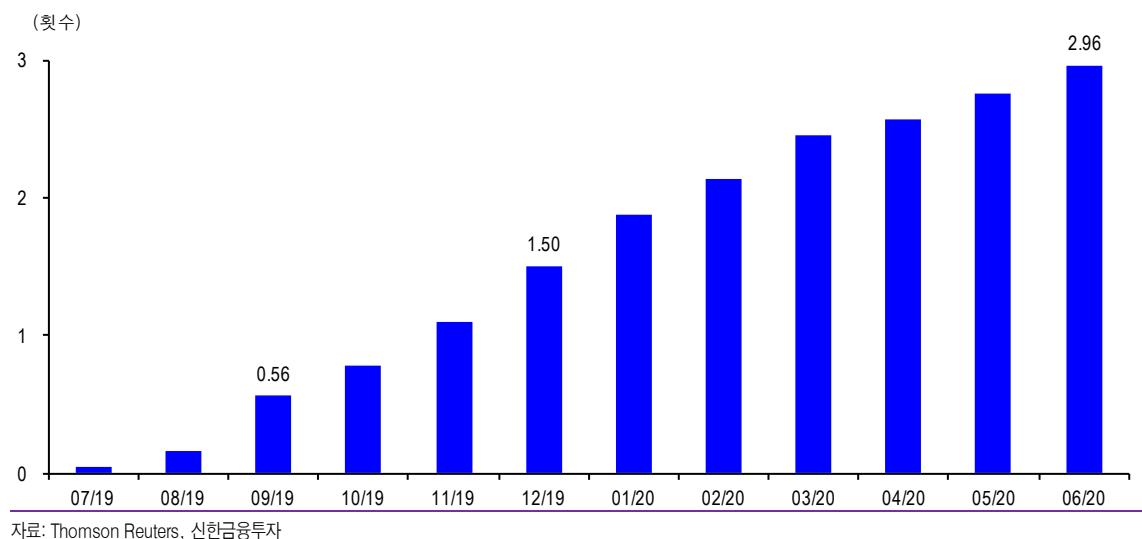
월요 Key Chart: 수급, IT/통신서비스

★ 증시지표



»»» Just 1 Minute!

Fed 선물 금리에 내재된 금리 인상 횟수 전망



- 하반기로 갈수록 달러 약세 환경 조성될 전망. 6월 비둘기가 될 Fed를 기대
- 원화 환산 수출액은 보합권에 진입. 이르면 6월, 늦어도 3분기 중 (+) 전환 가능
- 6월 KOSPI 밴드 2,000~2,170pt로 제시. PBR 0.85배 사수 희망

→ 신한 데일리(신한 생각)에 게재된 요약본의 원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신한아이, 골드윙 등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월간전망) 반등을 기대한다



곽현수

02-3772-2463

gwak81@shinhan.com

달러 약세 전환을 기대한다

클라리다 Fed 부의장은 5월 말 뉴욕 이코노믹 클럽 강연에서 성장 등이 부진 할 경우 통화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대형 IB 이코노미스트들은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미 언급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달러화 강세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듯하다. 금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국과 독일 간 금리 차는 한때 2.8%p 벌어졌으나 현재 2.3%p로 줄어들었다. 양국 금리 차는 달러화 지수와 0.9에 달하는 상관계수를 보인다. 미국 쌍둥이 적자(여기서는 경상수지 대신 무역수지를 재정수지와 합한 수치) 확대도 달러화 약세 요인이다.

펀더멘탈과 수급 개선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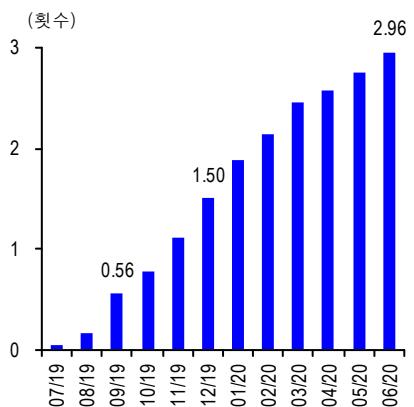
수출액은 EPS와 상관계수가 높다. 원화 환산 수출액이 달러 기준 수출액보다 EPS와 상관계수가 소폭 더 높다. 5월 원화 환산 수출액은 -0.5%로 보합권이었다. EPS 반등 시기는 원화 환산 수출액 반등 시점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빠르면 6월, 늦어도 3분기 중에는 이 모습이 확인 가능할 전망이다.

수급 환경도 5월보다 6월에 낫다고 생각한다. MSCI 비중 조절에 따른 자금 유출이 일단락됐다. 국내 장기 투자 성격이 짙은 연기금과 국가, 생명보험사 자금 유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긍정적이다.

2,000pt 지지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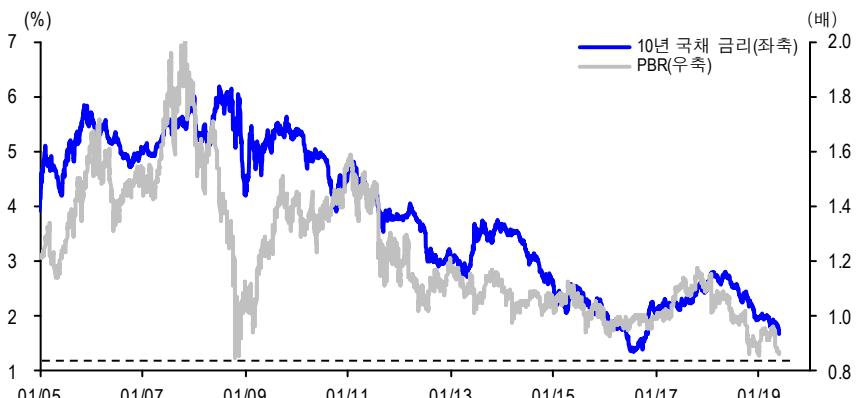
KOSPI 하단 2,000pt 지지를 기대한다. PBR 0.85배 선에 임계한 중요한 마디 저항선이기 때문이다. EPS 반등과 이에 따른 ROE 개선 기대감 고려 시 충분히 지켜낼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6월 상단은 PER 11.4배를 적용한 2,170pt로 제시한다. 이미 쏟아진 악재보다 돌출 가능한 호재에 주목할 때다.

Fed 선물 금리 내재 금리 인하 전망



자료: Thomson Reuters, 신한금융투자

한국 10년 국채 금리와 KOSPI PBR



자료: Thomson Reuters, 신한금융투자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곽현수)
본 자료는 6월 3일 공표될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Post – 유럽 의회 선거


Analyst >>>

한윤지
02-3772-2638
yj.han@shinhan.com

윤창용
02-3772-1583
cyyoon@shinhan.com

유럽 의회 구성원 확정, 향후 5년간 대략적 정치 판도 확인

유럽 의회 선거가 종료되고 구성원이 확정됐다. 예상대로 EPP(중도우, 제 1당), S&D (중도좌, 제 2당) 정치 그룹 의석이 축소된 반면 녹색당과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약진했다. 극우 3개 정당의 통합 가능성성이 제기됐으나, 대신 세 정당의 이념이 엇갈려 통합이 쉽지 않고 세 정당을 합쳐도 전체 의석의 1/4에 불과해 우려는 제한적이다.

의회 선거 이후 가장 중요한 일정은 집행위원장, ECB 총재 선출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EPP와 S&D의 의석 합이 과반에 미달해 연대의 해가 복잡해졌다. ALDE&R(중도, 제 3당)의 마크롱은 집행위원장 후보인 베버(EPP, 독일)에 반대하며 선출안 개정과 EPP를 배제한 진보연대를 주장한다. 다만 리스본 조약의 중요성과 EPP 없는 과반 연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베버(독일)의 위원장 당선이 유력하다. 이에 매파인 바이트만(독일)의 ECB 총재 선임 가능성은 낮으며, 비둘기파 후보들 중 총재 선임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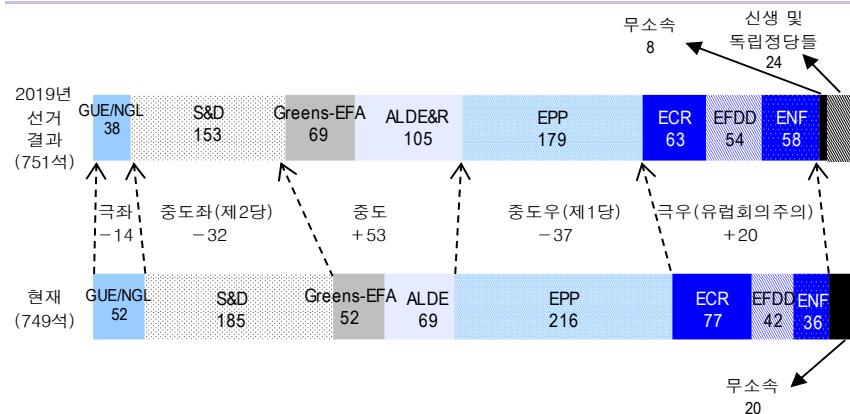
주요국 집권당 권력 약화됐으나, 영향은 국가별로 차별화

대부분의 주요국에서 집권당이 패배해 권력 약화가 예상되지만, 1) 독일에서는 집권당이 승리해 대내 정책 상황이 안정된다. 2) 영국에서는 초 강경 EU 탈퇴 찬성파인 신생 브렉시트당이 30% 의석을 차지해 승리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회의 절반 이상이 소프트 브렉시트를 원하며 노딜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 3) 프랑스는 노란조끼 시위 지속에 따라 야당인 국민연합이 승리해 마크롱의 권력 약화가 우려된다. 반면 정책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심리 지표 민감도는 후퇴했다. 하반기 중 경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4) 이탈리아는 오성운동이 패배하고 동맹이 승리했다. 오는 10월 내년도 예산안 제출 일정을 앞두고 재차 불안이 고조될 전망이다.

독일 정책 불확실성 및 경기선행지수



의회 선거 정치 그룹별 의석수 변화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한윤지, 윤창용). 동 자료는 2019년 5월 31일에 공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무역 분쟁 유탄을 맞은 수출



Analyst >>>

하건형

02-3772-1946

keonhyeong.ha@shinhan.com

5월 수출 9.4% 감소, 선박 제외 일평균 수출액 16.2% 급감

수출이 9.4% 줄어들며 3개월 만에 감소폭이 확대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 대 중국 수출 감소폭 확대 등이 수출 감소의 주 원인인데 G2 무역분쟁 격화라는 공통 분모를 지닌다. 작년보다 1.5일 증가한 조업일수와 선박 증가(+44.5%) 효과를 감안한 선박 제외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6.2% 급감했다. 4월 중 반등한 수입은 자본재와 1차산품 수입 축소로 5월 중 감소 반전했다. 무역 수지 흑자는 22.7억달러로 4개월 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력 및 신수출성장 품목 대부분 부진, 미국 호조 VS. 중국, EU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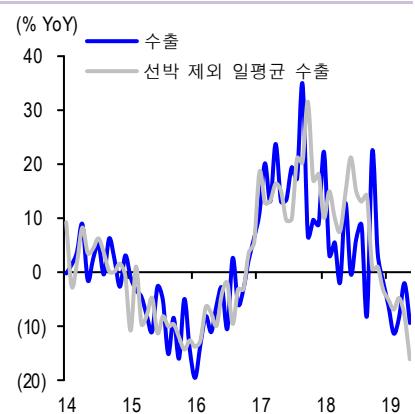
13대 주력 품목 중 3개 품목(일반기계, 자동차, 선박) 만이 증가했다. 신수출 성장동력품목 역시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했다. 무역 분쟁에 따른 수요 둔화와 단가 하락이 원인이다. 지역별 수출은 경기 흐름을 반영했다. 경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미국, 일본, CIS, 인도향 수출은 증가했다. 반면 중국과 EU향 수출은 각각 20.1%, 12.6% 줄었으며 대중동과 대중남미 수출도 부진했다.

수입은 1.9% 감소했다. 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 수입 감소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수입이 부진했다. 수출 대비 수입 감소폭이 미미해 무역수지 흑자는 22.7억달러로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축소됐다.

G2 무역 분쟁 격화로 대외 수요 악화 목도, 수출 회복 시점 후퇴

연초 이후 정책 조율 기대에 회복되던 대외 수요는 통상 마찰이 심화되면서 위축됐다. 특히 G2 무역분쟁에 민감한 반도체와 중국향 수출이 부진을 주도한다. 6월 28~29일 G20 정상회담에서 G2 정상 만남이 예정돼있으나 협상 여부는 불분명하다. 무역 잡음이 잦아들기 전까지 한국 수출 부진은 불가피하며, 수출 플러스(+) 반전 시점도 3/4분기에서 4/4분기로 후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출과 선박 제외 일평균 수출



자료: 무역협회, 산업자원통상부, 신한금융투자

5월 수출입 동향

	18.12월	19.1월	2월	3월	4월	5월
수출 (% YoY)	(1.7)	(6.2)	(11.4)	(8.3)	(2.0)	(9.4)
대미국 수출 (% YoY)	21.6	20.4	16.2	3.9	3.9	6.0
대EU 수출 (% YoY)	22.5	12.2	(11.6)	(11.0)	(1.9)	(12.6)
대일본 수출 (% YoY)	(0.9)	1.3	(6.6)	(13.1)	(8.2)	2.1
대중국 수출 (% YoY)	(14.0)	(19.0)	(17.3)	(15.7)	(4.5)	(20.1)
원화 환산기준 수출 (% YoY)	1.7	(1.3)	(7.9)	(3.3)	4.7	(0.4)
일 평균 수출 (% MoM)	(0.1)	(10.2)	7.9	0.7	(2.7)	(1.9)
수입 (% YoY)	1.1	(1.7)	(12.5)	(6.6)	2.6	(1.9)
일 평균 수입 (% MoM)	0.3	(4.1)	2.3	(3.0)	0.3	1.6
무역수지 (십억달러)	4.2	1.1	3.0	5.1	4.0	2.3

자료: 무역협회, 산업자원통상부, 신한금융투자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하건형). 동 자료는 2019년 6월 3일에 공표할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더 지켜보고 판단하자



Analyst >>>

김상훈

02-3772-1585

sanghun.kim@shinhan.com

5월 금통위 결과 – 소수의견 등장. 자신감 줄어든 한국은행

2019년 5월 금융통화위원회 결과는 기준금리 1.75% 동결이었다. 조동철 위원의 25bp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등장했다. 통방문과 기자회견에서는 대외여건 불확실성 속 경기 판단에 대한 자신감이 소폭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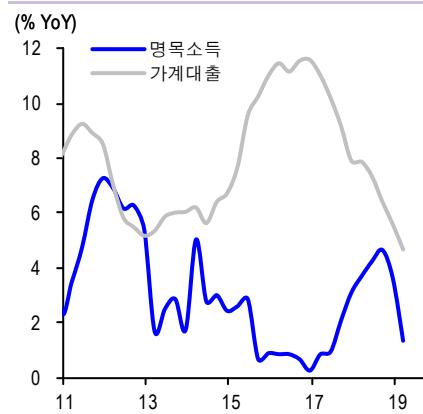
금통위 전부터 소수의견 출현 여부에 채권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조동철 위원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저물가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개적으로 비둘기 기조를 드러냈다. 결국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을 표출하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혔다. 조동철 위원은 지난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을 때 반대 표를 던진 바 있다.

통방문과 기자회견에서도 향후 경기 판단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방문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영향에 향후 경기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주열 총재 역시 대외여건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더 지켜보겠다는 스텐스를 보였다.

이주열 총재는 4월 기자회견 때보다 톤은 낮아졌으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금융불균형 경계심 때문이다. 2019년 1분기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4.7%로 명목소득 증가율 1.3%를 상회한다. 2013년 이후 지금까지 역전상태는 지속 중이다.

채권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소수의견 발표 후 국고 3년, 5년, 10년, 20년, 30년 모두 기준금리를 하회했다. 소수의견이 시그널은 아니라는 총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 가격이 반영됐다. 6월은 금통위가 없다. 7월 금통위 수정경제전망이 관건이다. 시장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채권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 한은의 고민은 심화될 것으로 본다.

한국 명목소득과 가계대출 증감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문구 비교

	2019년 4월	2019년 5월
대외경제		
세계경제	완만해지는 움직임	완만해지는 움직임
국제금융시장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주요국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으로 변동성 일시 확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변동성 확대
비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 영향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
국내경제		
수출	증가세 둔화	부진한 모습
내수	설비·건설투자의 조정, 소비 증가세 주춤	설비·건설투자의 조정, 소비 완만한 증가세
고용	취업자 증가규모 늘며 부진한 흐름 일부 완화	취업자수 증가규모 줄어들고 실업률 상승
물가	1% 밑도는 수준 등락. 하반기 이후 1% 초중반	1%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 하반기 이후 1% 초중반. 전망경로의 하방위험 확대
경기판단	1월 전망경로 소폭 하회. 성장세 다소 완만	4월 전망경로 수준. 무역분쟁에 불확실성 확대
통화정책 방향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 운용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 운용

자료: 한국은행, 신한금융투자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상훈). 동 자료는 2019년 5월 31일에 공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19-18 국내채권 시장, 외국인 영향력 확대

신용분석 김상훈 (02) 3772-1585 sanghun.kim@shinhan.com

국내채권, 외국인 투자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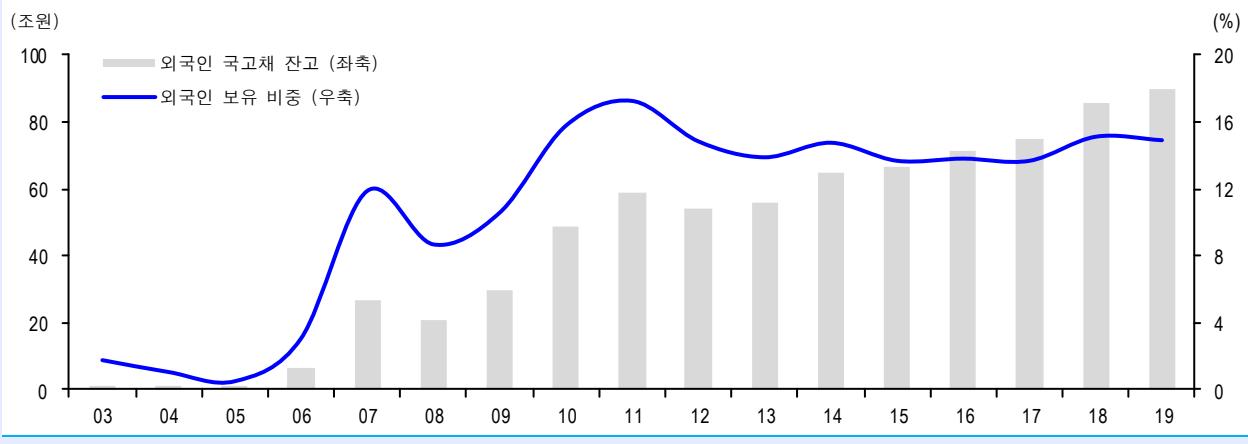
외국인의 국내채권 잔고가 120조원을 돌파했다. 2003년말 1%가 채 되지 않았던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18년말 5.9%까지 상승했다.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채권시장이 외국인에게 개방되며 꾸준히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채권 보유잔액 중 국고채 비율이 가장 높다. 2019년 5월말 89.6조원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고채 발행잔액의 14.9%에 달한다. 투자규모 뿐만 아니라 투자국가도 다변화됐다. 2007년 27개국에서 2018년 47개국으로 증가했다. 투자종목도 3년물에서 중장기채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투자자별로는 외국 중앙은행의 국내채권 투자비중이 증가세다. 2009년말 11.0%에서 2018년말 52.5%까지 상승하며 국내 채권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주체로 올라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속한 경제 회복, 양호한 재정건전성, 우수한 신용등급 등을 바탕으로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에도 외국인 순매수 기조 유지. 재정거래 유인을 바탕으로 국채 현·선물 수요는 금리 상단 지지

2019년에도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선호도는 지속 중이다. 올해 국채선물 3년과 10년을 각각 60,633계약, 19,162 계약 순매입하며 채권시장 강세를 이끌어 가고 있다. 최근 7주 연속 순매수다. 국고채 금리는 연일 하락세다. 국고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1.75%를 하회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 기조를 지속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1) 우리나라 기초체력에 대한 신뢰 2)글로벌 경기 우려에 따른 채권시장 강세 편승 3)한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4)통화스와프 시장에서 무위험 재정거래 유인이 늘어난 점이다. 최근 국내 기관이 낮아진 금리 레벨에 설불리 나서지 못하는 사이 외국인은 국채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채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자본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최근 수급을 움직이는 주체는 외국인이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영향에 재정거래를 노린 외국인의 국채 현·선물 수요는 금리 상단을 지지할 것이다.

외국인 국고채 잔고 및 보유 비중

자료: 인포맥스, 신한금융투자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상훈).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주 탐색



Analyst >>>

김다미

(02) 3772-1512

dm.kim@shinhan.com

최유준

(02) 3772-1964

junechoi1@shinhan.com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작년 8월 중국 상륙 이후 아시아 지역 확산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 뿐만 아니라 몽골, 베트남 등 주변국까지 확산되며 아시아 지역 축산업계에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년 8월 아시아 최초로 중국에서 발생, 4월 21일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아프리카 풍토병인 ASF가 중국에 퍼진 원인으로 1) 미방역 인력 및 차량의 출입, 2) 잔반 급여, 3) 살아있는 돼지나 돈육 제품의 수송이 지목되었다.

ASF 예방을 위한 소독제, 양돈사료와 대체재인 닭고기 수요 증가 기대

아시아 ASF* 확산에 따라 국내 방역, 사료, 육계업종이 주목받고 있다. 세 업종이 관심받게 된 요인은 상기 언급된 확산 원인과 연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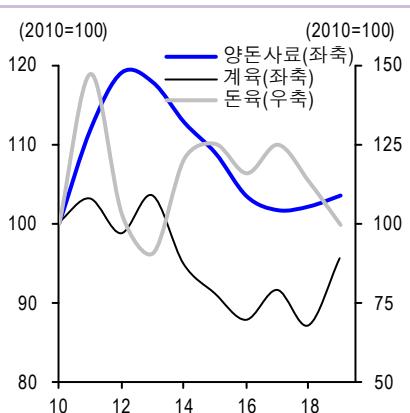
1) 생명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바이러스 특성상 사전 차단 방역을 위한 소독제 사용이 필수적이다. 2) 주요 확산 원인인 잔반 급여를 막기 위한 업계의 요구로 양돈 농가의 사료 사용률이 증가할 것이다. 3) 닭고기가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 돼지고기 최대 소비국인 중국 5월 돈육 도매가격이 YoY +29% 상승하며 육계업체의 반사 수혜가 예상된다.

북한 발병 공식화로 이슈 재부상 가능성 증가, 관련 기업 점검

ASF 중국 전역 확산과 국내 유입 우려로 4월 넷째주부터 관련 테마주 시세가 급등한 후 추가 재료 부재로 조정받았다. 그러나 25일 북한 자강도에서 돼지열병 확진이 보고되며 국내에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ASF 이슈 재부상 가능성에 따라 관련주로 거론되는 기업 중,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흑자이며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추려보았다.

*ASF: African Swine Fever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상품 연평균 가격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eKAPeia, 한국육계협회, 신한금융투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기업 탐색¹⁾

종목코드	종목명	시기총액 (십억원) ²⁾	P/E (18년, 배)	관련 매출액 (십억원)	포인트
035810	이지바이오	373.6	10.4	567.9(육계)	육계/사료주, 사료 44%/가금 28%
136490	선진	292.5	16.3	425.7	사료주, 배합사료 비중 36%, 중국법인 有
036580	팜스코	259.3	69.4	471.9	사료주, 양돈사료 비중 23%(2,848억)
001790	대한제당	176.8	19.8	355.6	사료주, 배합사료 비중 29%
088910	동우팜트테이블	113.9	6.3	250.2	육계주, 육계 비중 85%, 점유율 2위
036480	대성미생물	79.6	25.1	25.1	방역주
052670	제일바이오	76.4	73.4	27.8	방역주

자료: FnGuide, DART, 신한금융투자

* 1) 주: 관련 테마주 중 2018년 당기순이익 흑자 기업

* 2) 주: 시기총액은 5월 31일 종가 기준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다미, 최유준). 동 자료는 2019년 6월 3일에 공표할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SK하이닉스(000660) KSP

주가 (원)	65,300	▶ 3Q19부터 반도체 출하량 증가 폭이 가격 하락 폭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추천일	5월 29일	▶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도 CAPEX 조정을 통해 업황 훼손을 방어 가능
수익률	-0.9%	▶ 미국의 화웨이 제재 조치에 대한 수요 대체 효과 기대
상대수익	-0.6%p	

씨젠(096530) KDQ

주가 (원)	29,250	▶ 1분기 실적 컨센서스 크게 상회하며 양호한 수익성 기록
추천일	5월 27일	▶ 2분기 실적도 고객 수 증대에 따른 시약 매출 확대로 양호
수익률	6.9%	▶ 올해 영업이익률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10% 마진 회복
상대수익	6.0%p	

도이치모터스(067990) KDQ

주가 (원)	10,000	▶ BMW, MINI, Porsche를 국내에 판매하는 딜러사
추천일	5월 20일	▶ 1) 수익성 높은 A/S 부문 고성장, 2) 도이치오토월드 개장 효과 긍정적
수익률	31.6%	▶ 2019년 매출액 1조 2,749억원(+20.5% YoY), 영업이익 986억원(+94.8% YoY)이 전망
상대수익	34.1%p	

오이솔루션(138080) KDQ

주가 (원)	56,200	▶ 1분기 영업이익 97억원(흑전 YoY). 컨센서스 41억원 대폭 상회
추천일	5월 15일	▶ 2분기 매출액 전망 공시는 540억원. 5G向け 매출액은 404억원(+27.9% QoQ)이 예상
수익률	44.1%	▶ 하반기에서 20년 북미, 일본 5G 투자가 본격화 되면 추정치 상향, 밸류 리레이팅이 동시에 기대
상대수익	46.0%p	

에이치엘사이언스(239610) KDQ

주가 (원)	116,300	▶ 1분기 매출액 244억원(+90.9% YoY), 영업이익 54억원(+86.4% YoY)을 기록. 분기 사상 최대 실적
추천일	5월 14일	▶ 1) 새싹보리 고성장 지속, 2) 6월 골관절염 건기식 출시 모멘텀 유효
수익률	40.6%	▶ 19F P/E 19.4배. 상반기 높은 주가 상승에도 본 게임은 이제 시작. 추가적인 주가 리레이팅 기대
상대수익	42.4%p	

- 상기 종목은 리서치센터의 포트폴리오이며, 장기투자 의견과 상이하거나, 투자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5% 이상 하락할 경우 Stop Loss 규정에 의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합니다.
- 주가는 직전거래일 종가 기준이며, 일부 종목 정보는 FnGuide를 참고하였습니다.
- 주가(원)는 전일 종가 기준입니다.

6월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

마이크로소프트 (MSFT US) 미국

주가 (달러)	123.7
추천일	19년 4월 26일
편입 이후 수익률	-1.1%
원화 환산 수익률	3.4%

- ▶ 소프트웨어(Windows, Office) 브랜드 로열티를 통해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까지 석권한 IT 업체
- ▶ 클라우드 산업 성장 최대 수혜 업체. Office의 구독 기반 서비스 변환으로 안정적인 이익 달성을 가능
- ▶ 19F P/E 28배. 캐쉬카우들의 안정적인 이익과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성 감안 시 할증 가능

중국중차 (601766 CH) 중국

주가 (위안)	7.9
추천일	19년 4월 1일
편입 이후 수익률	-13.1%
원화 환산 수익률	-11.2%

- ▶ 중국 철도 인프라 투자 최대 수혜주. 철도 차량 제작 및 장비 독점 사업자
- ▶ 1) 철도 인프라 투자 가속화, 2) 4월 말 제2회 일대일로 국제 포럼 이벤트는 단기 주가 반등 재료
- ▶ 19F P/E 18배, Peer 대비 30% 할인된 혁연한 저평가. 단기 반등 모멘텀도 보유해 가격 매력 충분

중국국여 (601888 CH) 중국

주가 (위안)	77.4
추천일	19년 4월 30일
편입 이후 수익률	-2.4%
원화 환산 수익률	-2.2%

- ▶ 중국 면세점 시장 점유율 82%에 달하는 독점 사업자. 정부 지분 55.3%로 최대 주주
- ▶ 1) 노동절 연휴 특수에 따른 단기 모멘텀, 2) 10월 베이징 제2수도국제공항 면세점 오픈 예정
- ▶ 19F P/E 35배. 글로벌 피어대비 우월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시장 지배력은 멀티플 할증 근거

복성제약 (600196 CH) 중국

주가 (위안)	24.7
추천일	19년 3월 1일
편입 이후 수익률	-13.1%
원화 환산 수익률	-10.7%

- ▶ 벤처체인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중국 대표 헬스케어 그룹. 제약 R&D 부문 투자 1위
- ▶ 1) 2월 중국 최초 국산 바이오시밀러 출시. 리딩 바이오 업체로 격상, 2) 非제약 부문 고성장 지속
- ▶ 19F P/E 22배, 업종 평균 31배 크게 하회. 신약 파이프 라인 고려 시 과도한 주가 저평가 구간

오리엔탈랜드 (4661 JP) 일본

주가 (엔)	13,250.0
추천일	19년 4월 30일
편입 이후 수익률	5.0%
원화 환산 수익률	10.0%

- ▶ 매년 3,000만명이 찾는 일본 도쿄 디즈니 리조트(디즈니랜드, 디즈니씨) 관리 및 운영 기업.
- ▶ 1) 입장권 가격 인상 기대, 2) 방일 관광객 증가로 입장객 및 호텔 이용 수요 확대, 3) 안정적 부대 수입
- ▶ FY20F P/E 45배. 관광객 증가와 대규모 투자가 2022년까지 주가 상승 지지 전망

시세이도 (4911 JP)

	일본	
주가 (엔)	7,833.0	▶ 일본을 대표하는 글로벌 화장품 기업. 2020년까지 두 자리 수 이익 성장
추천일	19년 3월 1일	▶ 프레스티지 실적 견인(2018년 +16% YoY), 수익성 높은 면세 채널 확장(2018년 면세 영업이익률 20%)
편입 이후 수익률	3.6%	▶ 19 P/E 44배. Peer 기업 대비 높은 수준이나 상대 성장 여력 감안 시 프리미엄 부여 정당
원화 환산 수익률	11.7%	

- 상기 종목은 리서치센터의 포트폴리오이며, 장기투자의견과 상이하거나, 투자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5% 이상 하락할 경우 Stop Loss 규정에 의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합니다.
- 상기 종목 정보는 FnGuide, Bloomberg 및 WIND(중국, 홍콩) 컨센서스입니다.
- 주가(각국 통화 기준)는 각 시장의 전거래일 종가입니다.

6월 ETF 포트폴리오

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 (TLT.US) 미국

주가 (달러) 130.2

추천일 19년 5월 9일

편입 이후 수익률 4.2%

원화 환산 수익률 5.0%

- ▶ 만기가 20년 이상인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
- ▶ 직접 투자하기 힘든 미 국채 투자에 용이. 장기 국채는 통상 안전자산으로 인식됨
- ▶ 매월 배당이 있어 채권 직접투자와 유사한 투자전략 구사 가능
- ▶ 금리변동에 민감한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어 금리 방향성 배팅에 용이

VANECK VECTORS VIETNAM

ETF (VNM.US) 베트남

주가 (달러) 16.2

추천일 19년 3월 5일

편입 이후 수익률 -3.5%

원화 환산 수익률 1.9%

- ▶ MVIS VIETNAM 지수에 편입된 기업 시가총액 기중방식 투자
- ▶ 베트남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업 전체 시가총액의 약 70% 커버
- ▶ MSCI 베트남 지수보다 더 많은 종목을 편입하여 실제 베트남 시장을 잘 반영한 ETF

Xtrackers Harvest CSI 300 China

A-Shares ETF (ASHR.US) 중국

주가 (달러) 26.3

추천일 19년 1월 22일

편입 이후 수익률 13.9%

원화 환산 수익률 19.7%

- ▶ CSI300 지수에 편입된 기업 시가총액 기중방식 투자
- ▶ 상해 및 심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높은 300개 기업 편입
- ▶ 중국 본토기업 A주에 중점적으로 투자

ProShares S&P 500 Dividend

Aristocrats ETF (NOBL.US) 미국

주가 (달러) 66.0

추천일 19년 1월 22일

편입 이후 수익률 5.7%

원화 환산 수익률 11.1%

- ▶ S&P 500 Dividend Aristocrats 지수에 편입된 기업을 동일가중 방식으로 투자
- ▶ S&P 500 종목 중 적어도 25년 동안 매년 연속으로 배당지급 증가한 기업 편입
- ▶ 시장 대비 높은 배당수익률 + 배당성장 주식 투자

- 상기 종목은 리서치센터의 포트폴리오이며, 장기 투자의견과 상이하거나, 투자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편입 이후 주가가 15% 이상 하락할 경우 Stop Loss 규정에 의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합니다.
- 상기 종목 정보는 각 ETF 운용사 홈페이지 및 Bloomberg 등 정보를 인용하였습니다.
- 주가(각국 통화 기준)는 각 시장의 전거래일 종가입니다. (단, 해외 상장 ETF의 주가는 30일 기준 종가입니다.)
- 수익률은 추천일의 종가 대비 전거래일 종가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해외 상장 ETF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추천일의 종가 대비 전전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률입니다.

#19-76 쑥쑥 크는 바이오시밀러 시장



Analyst >>>

배기달

(02) 3772-1554

kdbae@shinhan.com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연간 30% 씩 성장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17년 97억 달러에서 연간 30% 씩 성장하여 2023년에는 481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전체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시밀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년 3.6%에서 23년 10.9%로 확대되겠다. 대형 바이오신약의 특허 만료는 이어지고 있으며 높아지는 약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환자와 의사의 신뢰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확대는 계속되겠다.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의 환경 변화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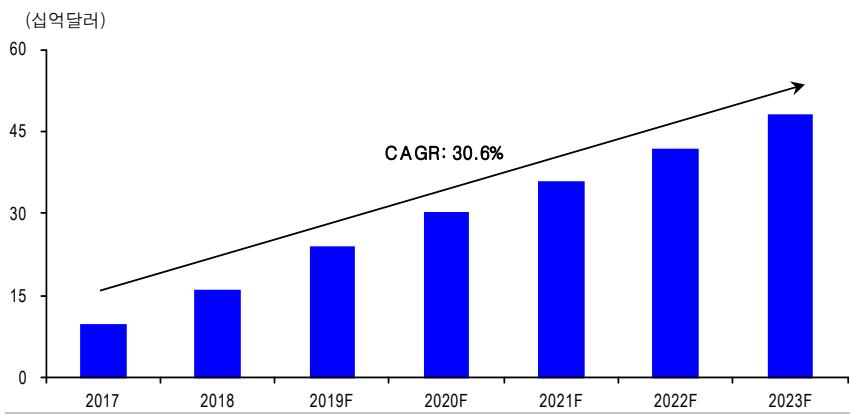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사용 촉진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유럽에 비해 바이오시밀러 도입이 늦었다. 유럽에서는 바이오시밀러가 06년 처음으로 승인되었으나 미국에서는 15년에 비로소 첫 바이오시밀러가 승인을 받았다. 늦은 만큼 현재 바이오시밀러 침투율도 더디다. 셀트리온의 램시마는 유럽 출시 2년 후 점유율이 30%를 넘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같은 기간 10%를 밟들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식품의약국(FDA)가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의 기준을 발표하였다. 17년 초안 발표 이후 2년 넘게 최종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었다.

바이오시밀러 선두 업체인 셀트리온(068270) 주목

커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선두 주자는 셀트리온이다. 작년 4분기를 저점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현재 셀트리온 제품은 유럽에서 3개, 미국에서 1개 품목이 팔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유럽에서 1개, 미국에서는 2개 품목이 더 출시된다. 18년 이후 최저 수준인 현재 주가에서는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추이 및 전망



자료: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Frost&Sullivan, 신한금융투자 추정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배기달) 당시는 상기회사(셀트리온)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식선물의 유동성 공급회사(LP)임을 고지합니다. 당사는 상기회사(셀트리온)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식옵션의 유동성 공급회사(LP)임을 고지합니다.

월: 수급

화: 경제

수: 리스크

목: 밸류에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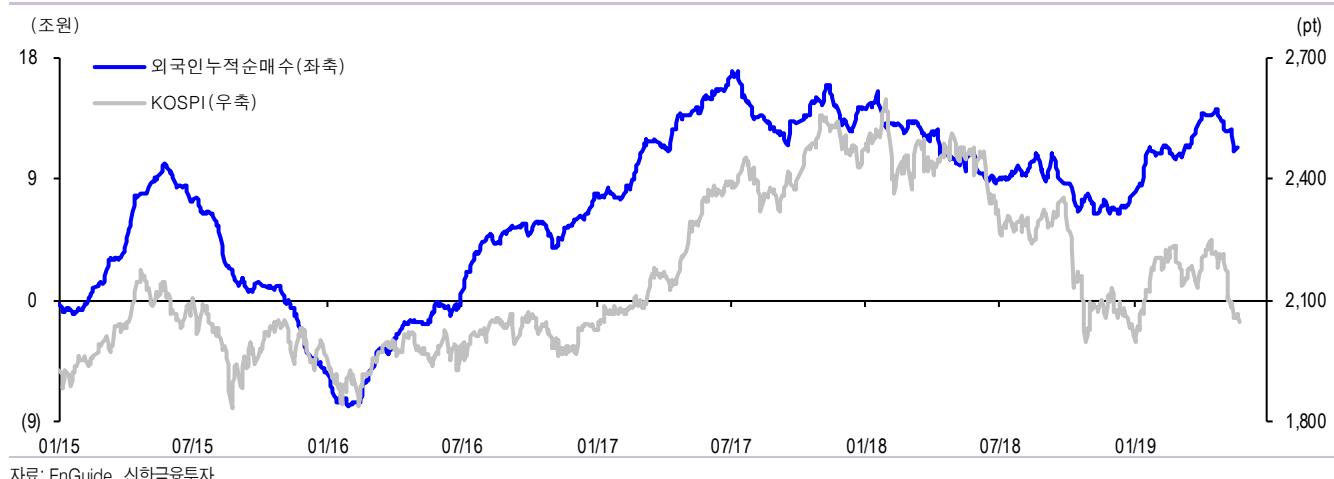
금: 금리/환율

✓ KOSPI 전주 대비 0.17% 하락한 2,041.74pt로 마감

MSCI EM 지수 내 한국 비중 축소 마무리로 인한 외국인 매도세 원화에 KOSPI 전주 대비 하락폭 축소

→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도는 1.04조원,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는 8,624억원. 외국인은 의약품, 통신, 기계 업종 등에서 자금 유입했으나 금융, 화학, 전기전자 업종에서 순매도. 기관은 연기금, 보험 중심 자금 유입

2015년 이후 외국인 KOSPI 누적 순매수 대금 및 KOSPI 추이



❖ 차트 릴레이 ❖

✓ 지난주 외국인 KOSPI 1.04조원 순매도

순매수 업종은 의약품, 통신,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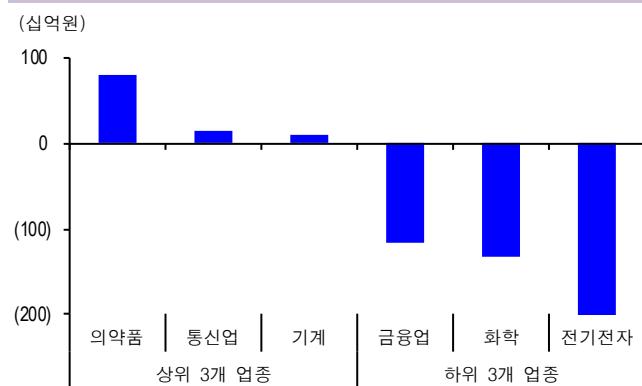
→ 외국인은 지난주 금융업에서만 1,100억 넘게 순매도하며 1조원대 자금 유출

✓ 31일 기준, 선진시장, 신흥시장 동반 순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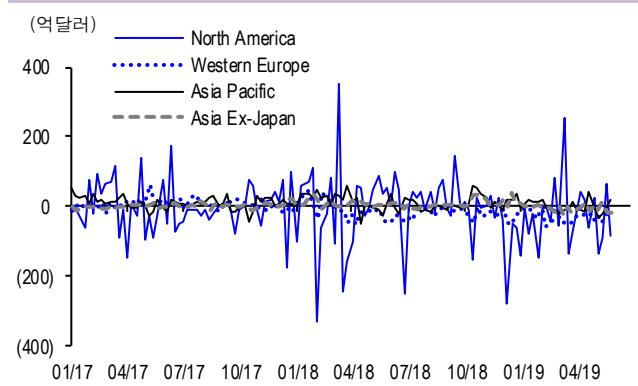
주간 기준 선진시장은 북미 순매도 반전으로 자금 유출

→ 신흥시장은 일본 제외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자금 유출 지속하며 순매도

전주 KOSPI 외국인 순매수 상/하위 3개 업종(5/27~5/31)



2017년 이후 4대 지역 펀드 자금 유출입 추이



월: IT
통신서비스화: 소재
산업재수: 경기소비재
금융목: 필수소비재
헬스케어금: 에너지
유트리티

✓ 4월 하순 DRAM 고정가격 -13.0%

DRAM 고정가격의 하락 지속될 전망

→ 수요 부진과 재고 압력이 동시에 상존

4Gb DDR4 (512x8)_2133/2400Mhz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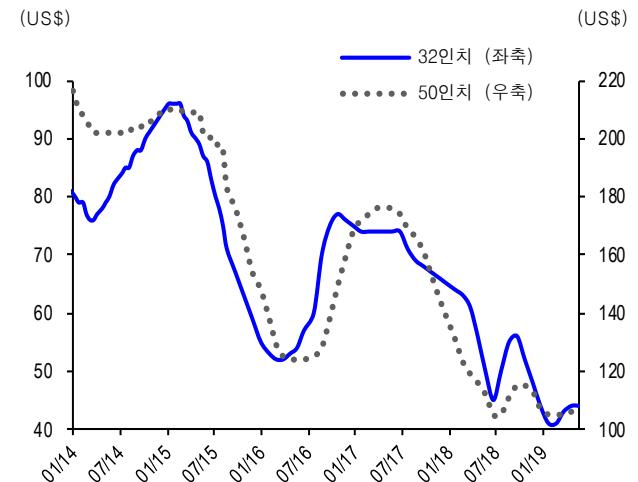
자료: DRAMeXchange, 신한금융투자

✓ 5월 32" LCD TV 패널 가격 보합

예상보다 비우호적인 상황으로 패널가 상승세 중지

→ 공급과잉 우려 상존, 웅 셋다운 지연 노이즈 발생
TV 수요 불확실성으로 패널 재고 축적에 미온적

LCD TV 패널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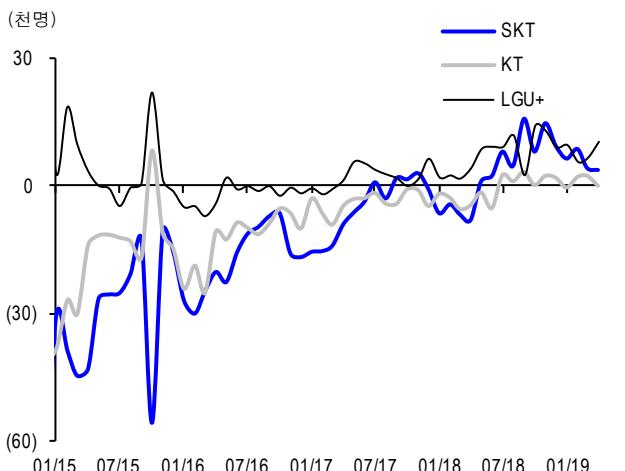
자료: IHS, WitsView, 신한금융투자

✓ 4월 번호이동: 전월 대비 7.6% 감소

4월 번호이동자 417,844명 기록

→ SK텔레콤 4,290명 순증, KT 260명 순증
LG유플러스 10,580명 순증

통신 3사 월별 번호이동 순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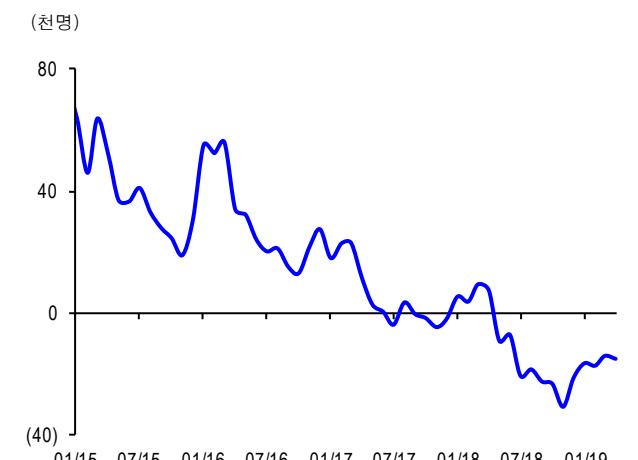
자료: 통신사업자연합회 KTOA, 신한금융투자

✓ 4월 MVNO 가입자 MVNO 15,130명 순감

MVNO(알뜰폰) 가입자 12개월 연속 감소

→ MVNO → LGU+ 이동 전년대비 26.3% 증가
MVNO → KT 이동 전년대비 19.1% 증가

MVNO(알뜰폰) 월별 번호이동 순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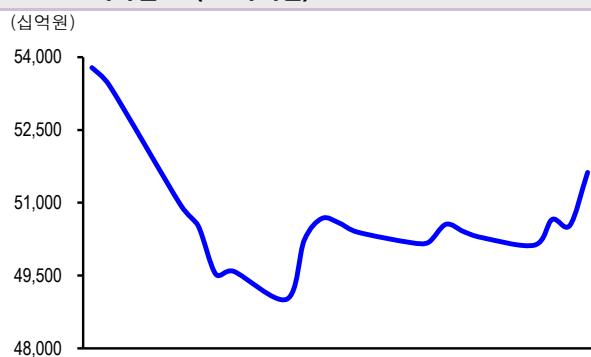


자료: 통신사업자연합회 KTOA, 신한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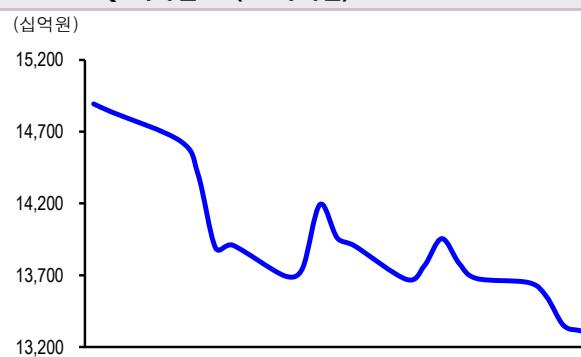
대차잔고 증감 (단위: 십억원)

	2018년 말	5/24 (금)	5/27 (월)	5/28 (화)	5/29 (수)	5/30 (목)
코스피	44,734	50,284	50,127	50,656	50,534	51,625
코스닥	13,157	13,677	13,648	13,553	13,350	13,311

KOSPI 대차잔고 (20거래일)



KOSDAQ 대차잔고 (20거래일)



대차거래 상위 종목 KOSPI (단위: 주/백만원)

기준일 : 2019년 5월 30일

수량				금액			
종목	증가	총잔고	차입 주체	종목	증가	총잔액	차입 주체
삼성전자	7,628,966	120,921,254	외국인60%/기관40%	SK하이닉스	422,030	2,462,518	외국인20%/기관80%
SK하이닉스	6,404,101	37,367,509	외국인20%/기관80%	삼성전자	324,613	5,145,199	외국인60%/기관40%
한화생명	4,871,015	17,192,262	외국인95%/기관5%	SK이노베이션	131,678	532,223	외국인19%/기관81%
SK이노베이션	798,049	3,225,596	외국인19%/기관81%	NAVER	69,606	695,650	외국인25%/기관75%
쌍방울	661,800	3,465,656	외국인96%/기관4%	LG생활건강	62,673	743,587	외국인21%/기관79%
NAVER	621,484	6,211,161	외국인25%/기관75%	카카오	33,046	696,597	외국인42%/기관58%
TIGER 200	578,000	26,070,595	기관100%	엔씨소프트	31,534	803,900	외국인18%/기관82%
한온시스템	350,234	12,276,734	외국인61%/기관39%	현대차	22,940	1,708,010	외국인69%/기관31%

대차거래 상위 종목 KOSDAQ (단위: 주/백만원)

기준일 : 2019년 5월 30일

수량				금액			
종목	증가	총잔고	차입 주체	종목	증가	총잔액	차입 주체
팜스토리	752,000	5,395,909	외국인50%/기관50%	헬릭스미스	34,918	669,537	외국인81%/기관19%
SFA반도체	507,456	15,457,708	외국인33%/기관67%	에이치엘비	15,930	769,780	외국인47%/기관53%
피엔티	456,113	1,084,653	외국인53%/기관47%	씨젠	6,866	66,574	기관100%
네이처셀	332,570	8,127,233	외국인80%/기관20%	에스에프에이	4,480	58,425	기관100%
자연과학환경	331,000	1,478,495	외국인10%/기관90%	코미팜	4,439	108,851	외국인98%/기관2%
오리엔트정공	318,800	964,137	외국인50%/기관50%	아난티	3,760	174,516	외국인86%/기관14%
HB테크놀러지	282,308	4,670,658	외국인64%/기관36%	네이처셀	3,575	87,367	외국인80%/기관20%
아난티	263,869	12,246,746	외국인86%/기관14%	에코프로	2,989	114,534	외국인44%/기관56%

공매도 상위 종목 KOSPI (단위: 주/백만원)

체결일 : 2019년 5월 30일

종목	수량	비중	종목	금액	비중
LG디스플레이	1,124,463	61.07%	삼성전자	25,663	5.14%
삼성전자	603,637	5.13%	LG디스플레이	18,569	61.10%
쌍방울	570,337	4.60%	셀트리온	16,648	21.00%
메리츠종금증권	393,494	26.69%	휠라코리아	12,829	25.79%
쌍용양회	271,495	21.85%	LG생활건강	10,800	23.47%
KODEX 200	228,168	3.93%	현대차	9,700	14.58%
한온시스템	224,093	51.62%	LG이노텍	9,167	28.02%
두산인프라코어	217,343	20.81%	포스코케미칼	8,490	23.29%

공매도 상위 종목 KOSDAQ (단위: 주/백만원)

체결일 : 2019년 5월 30일

종목	수량	비중	종목	금액	비중
SFA반도체	997,076	3.93%	에이치엘비	8,302	25.16%
신화인터넷	240,119	6.88%	메지온	7,333	31.67%
HB테크놀러지	228,015	7.36%	에스엠	6,848	9.88%
부방	193,819	1.67%	신라젠	5,315	14.56%
이지바이오	192,540	10.56%	셀트리온헬스케어	3,993	8.04%
에스엠	168,422	10.02%	SFA반도체	3,192	3.92%
파트론	159,809	24.02%	엘앤에프	2,757	21.56%
에스모	153,162	2.67%	씨젠	2,692	25.21%

누적 공매도 상위 종목 (단위: 주)

KOSPI 5거래일 누적 공매도			KOSDAQ 5거래일 누적 공매도		
종목	수량	비중	종목	수량	비중
메리츠종금증권	7,350,082	19.32%	SFA반도체	2,168,808	2.40%
삼성전자	2,568,875	3.51%	파워로직스	865,013	6.76%
KT	2,516,341	27.83%	휴림로봇	772,731	1.48%
LG디스플레이	2,400,007	28.22%	제이콘텐트리	768,647	12.33%
쌍방울	1,898,924	3.59%	HB테크놀러지	705,012	3.51%
신한지주	1,551,084	20.80%	RFHIC	648,790	3.54%
DGB금융지주	1,460,985	5.05%	대아티아이	623,201	6.12%
한온시스템	1,193,977	32.58%	텔콘RF제약	593,408	3.05%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4주 연속 순매도

조용식

(02) 3772-1598

ycc@shinhan.com

KOSPI 기관동향 (5월 27일 ~ 5월 31일)

(억원, 체결기준)	기관	외국인	개인	기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기타법인
매 도	53,558.1	108,406.9	97,388.3	1,461.7	20,291.0	3,097.1	5,336.0	3,937.0	170.8	198.4	20,528.0	1,461.7
매 수	62,119.0	97,977.6	99,398.9	1,290.7	20,582.8	5,862.7	7,187.1	4,483.7	264.1	248.6	23,490.0	1,290.7
순매수	8,560.8	-10,429.4	2,010.6	-171.0	291.8	2,765.6	1,851.1	546.8	93.4	50.2	2,962.0	-171.0

KOSDAQ 기관동향 (5월 27일 ~ 5월 31일)

(억원, 체결기준)	기관	외국인	개인	기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기타법인
매 도	11,671.3	22,525.2	171,311.1	2,032.6	3,254.6	841.6	2,904.5	2,894.5	107.6	109.6	1,558.9	2,032.6
매 수	13,094.8	21,093.6	171,835.6	1,512.8	4,254.9	947.7	3,129.6	2,484.2	68.0	81.5	2,128.9	1,512.8
순매수	1,423.6	-1,431.6	524.5	-519.8	1,000.4	106.1	225.1	-410.3	-39.6	-28.1	570.0	-519.8

국내기관 및 외국인 매도·매수 상위종목 : KOSPI (금액기준)

국내기관			외국인				
순매도	(억원)	순매수	(억원)	순매도	(억원)	순매수	(억원)
KODEX MSCI Korea TR	925.7	SK하이닉스	2,173.4	SK하이닉스	3,462.0	KODEX MSCI Korea TR	925.6
KODEX 레버리지	580.3	삼성전자	1,808.8	삼성전자	2,490.8	셀트리온	607.8
삼성전기	228.2	SK이노베이션	755.1	SK이노베이션	850.2	현대차	362.6
휠라코리아	188.0	현대모비스	510.3	삼성전자우	460.1	LG전자	352.0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182.1	LG전자	478.7	현대모비스	459.0	두산	223.9
롯데케미칼	173.9	삼성전자우	426.3	엔씨소프트	352.4	삼성바이오로직스	181.6
한진칼	162.6	LG화학	336.8	NAVER	351.7	한진칼	170.6
포스코케미칼	143.0	삼성SDI	331.7	삼성SDI	351.1	삼성엔지니어링	112.4

국내기관 및 외국인 매도·매수 상위종목 : KOSDAQ (금액기준)

국내기관			외국인				
순매도	(억원)	순매수	(억원)	순매도	(억원)	순매수	(억원)
에이비엘바이오	244.3	RFHIC	360.8	셀트리온헬스케어	482.9	에이비엘바이오	369.2
오이솔루션	220.9	에스엠	322.2	RFHIC	467.1	펄어비스	171.0
케이엠더블유	104.4	에스에프에이	180.6	네페스	189.3	유틸렉스	109.9
지노믹트리	101.3	서울반도체	171.7	에스에프에이	173.9	쏠리드	86.7
유틸렉스	62.0	실리콘웍스	116.1	메디톡스	165.8	강스템바이오텍	84.1
수젠텍	58.8	셀트리온헬스케어	112.7	헬릭스미스	145.5	와이지엔터테인먼트	83.2
와이지엔터테인먼트	55.0	메디톡스	101.6	메지온	135.0	아난티	80.4
올릭스	51.9	네페스	95.4	실리콘웍스	108.5	에코마케팅	79.9

* 주: 금요일(5/31) 정규장 종료 이후(16시) 기준

	2018년말	5/27 (월)	5/28 (화)	5/29 (수)	5/30 (목)	5/31 (금)
KOSPI 지수 추이 (등락)	2,041.04	2,044.21(-1.10)	2,048.83(+4.62)	2,023.32(-25.51)	2,038.80(+15.48)	2,041.74(+2.94)
거래량 (만주)	35,268	35,162	49,448	36,827	44,480	42,655
거래대금 (억원)	41,207	35,066	80,803	45,644	48,334	48,388
상장시가총액 (조원)	1,344	1,356	1,358	1,345	1,356	-
KOSPI200 P/E** (배)	8.53	9.25	9.26	9.15	9.24	-
등락종목수	상승 하락	342(0) 491(0)	584(1) 262(0)	168(0) 689(0)	420(4) 398(0)	484(1) 348(0)
주가이동평균	5일 20일 60일 120일		2,055.04 2,113.57 2,162.88 2,142.05	2,052.56 2,107.05 2,160.43 2,141.55	2,044.25 2,097.40 2,157.64 2,140.80	2,040.09 2,089.16 2,155.30 2,140.31
이격도	5일 20일		99.47 96.72	99.82 97.24	98.98 96.47	99.94 97.59
투자심리선	10일		40	40	30	40
						50

	2018년말	5/27 (월)	5/28 (화)	5/29 (수)	5/30 (목)	5/31 (금)
KOSDAQ 지수 추이(등락)	675.65	689.67(-0.36)	702.76(+13.09)	691.47(-11.29)	689.33(-2.14)	696.47(+7.14)
거래량 (만주)	59,821	78,262	72,396	82,781	65,433	63,134
거래대금 (억원)	30,339	43,137	45,386	44,095	38,472	34,510
시가총액 (조원)	228.2	237.0	241.3	234.3	233.6	-
KOSDAQ P/E** (배)	42.94	45.12	45.99	46.38	46.25	-
등락종목수	상승 하락	522(5) 658(0)	940(1) 278(0)	282(2) 942(0)	500(0) 699(0)	821(3) 384(0)
주가이동평균	5일 20일 60일 120일		697.50 724.20 740.71 720.18	697.26 722.29 740.24 720.20	694.16 719.33 739.29 720.17	692.65 716.06 738.32 720.11
이격도	5일 20일		98.88 95.23	100.79 97.30	99.61 96.13	99.52 96.27
투자심리선	10일		40	40	30	30
						40

* 직전거래일 데이터는 정규장 종료 이후(16시) 기준

** P/E 배수는 최근 반기실적 빙영치로 수정

증시자금 추이	2018년말	5/27 (월)	5/28 (화)	5/29 (수)	5/30 (목)	5/31 (금)
고객예탁금 (억원)	249,400	245,298	265,366	266,305	262,909	-
실질고객예탁금 증감*** (억원)	-3,429	-2,224	+20,068	+939	-3,396	-
신용잔고** (억원)	94,076	103,028	102,375	102,111	102,380	-
미 수 금 (억원)	1,723	1,287	1,260	1,332	1,639	-

신한금융투자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19년 5월 27일 기준)

매수 (매수)	96.67%	Trading BUY (중립)	0.95%	중립 (중립)	2.38%	축소 (매도)	0%
---------	--------	------------------	-------	---------	-------	---------	----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지역	항목	기간	중요도	예상치	이전치
6월 3일	미국	ISM 제조업지수	5월	★★★	53.0	52.8
6월 4일	한국	GDP 수정치 (QoQ)	1Q	★★☆	-0.3%	-0.3%
		GDP 수정치 (YoY)	1Q	★★☆	1.8%	1.8%
		소비자물가 (MoM)	5월	★★☆	0.4%	0.4%
6월 5일	한국	경상수지	4월	★★★	-	\$4,820M
		유로존 소매판매 (MoM)	4월	★★★	-	0.0%
		미국 ISM 비제조업지수	5월	★★☆	55.6	55.5
6월 6일	유로존	ECB 통화정책회의 (예금금리)	6월	★★★	-0.40%	-0.40%
		미국 무역수지 (SA)	4월	★★☆	-\$50.5B	-\$50.0B
6월 7일	미국	비농가취업자수 (MoM)	5월	★★☆	190K	263K
		실업률 (SA)	5월	★★★	3.6%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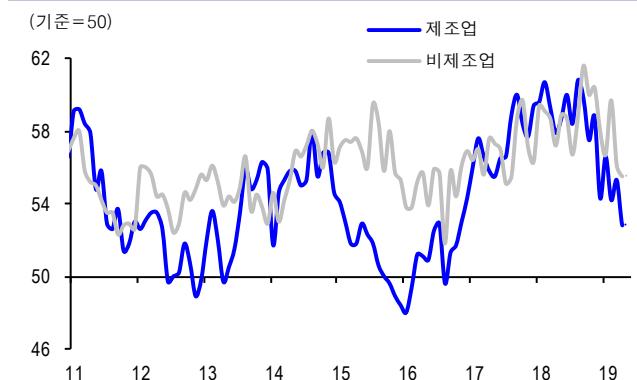
주요 이벤트

날짜	국가	이벤트	중요도	코멘트
6월 4~5일	미국	연준 시카고 통화정책 컨퍼런스	★★★	컨퍼런스를 통해 향후 연준 정책 방향에 대한 청사진 가능 가능

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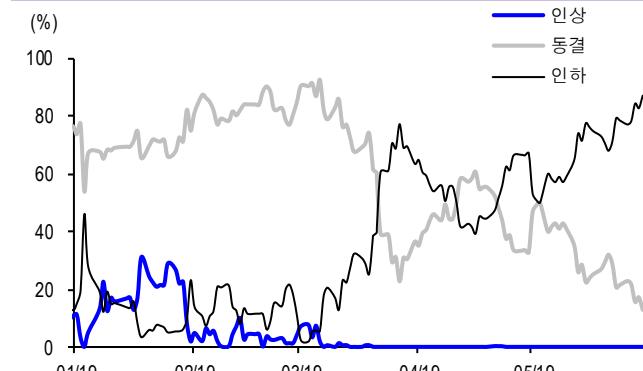
Chart in Focus

미국 ISM 제조업과 비제조업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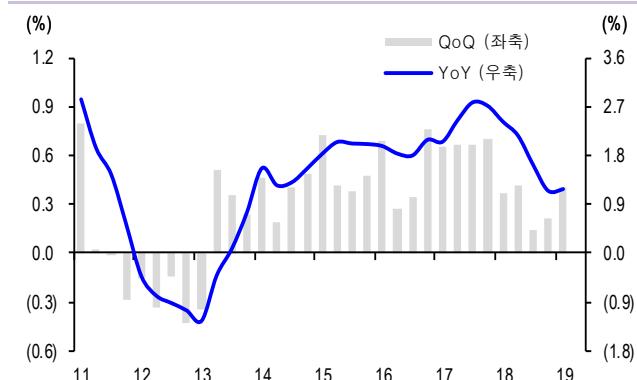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 신한금융투자

미국 연내 기준금리 인상 및 인하 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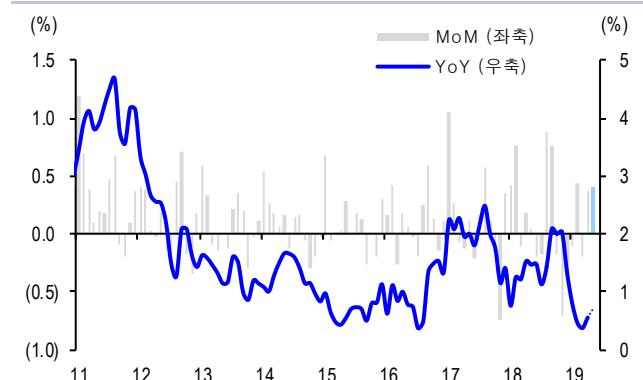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유로존 GDP



자료: Thomson Reuters, 신한금융투자

한국 소비자물가



자료: Thomson Reuters, 신한금융투자



서울지역

강남	02) 538-0707	노원역	02) 937-0707	마포	02) 718-0900	삼풍	02) 3477-4567	연희동	02) 3142-6363
강남중앙	02) 6354-5300	논현	02) 518-2222	명동	02) 752-6655	송파	02) 449-0808	영업부	02) 3772-1200
광교	02) 739-7155	답십리	02) 2217-2114	목동	02) 2653-0844	스타시티	02) 2201-8315	잠실신천역	02) 423-6868
광화문	02) 732-0770	대치센트레빌	02) 554-2878	반포	02) 533-1851	신당	02) 2254-4090	중부	02) 2270-6500
구로	02) 857-8600	도곡	02) 2057-0707	보라매	02) 820-2000	압구정	02) 511-0005		
남대문	02) 757-0707	마곡역	02) 887-0809	삼성역	02) 563-3770	여의도	02) 3775-4270		

인천·부천지역

계양	032) 553-2772	수원	031) 246-0606	의정부	031) 848-9100	판교	031) 8016-0266
분당	031) 712-0109	안산	031) 485-4481	일산	031) 907-3100	평택	031) 657-9010
산본	031) 392-1141	인천	032) 819-0110	정자동	031) 715-8600	평촌	031) 381-8686

부산·경남지역

금정	051) 516-8222	동래	051) 505-6400	서면	051) 818-0100	울산남	052) 257-0777
김해	055) 327-7707	마산	055) 297-2277	울산	052) 273-8700	청원	055) 285-5500

대구·경북지역

구미	054) 451-0707	대구워브더제니스	053) 793-8282	포항	054) 252-0370		서귀포	064) 732-3377
대구	053) 423-7700	월배	053) 642-0606				제주	064) 743-9011

1

광주	062) 232-0707	광양	061) 791-8020	전주	063) 286-9911	
구사	063) 442-9171	여수	061) 682-5262	수완	062) 956-0707	

BWM Lounge

경희궁	02) 2196-4655	마포중앙	02) 718-5029	순천연향동	061) 727-6703	의정부	031) 848-0125	충북	043) 232-1088
과천	02) 3679-1410	명동	02) 3783-1257	스타시티	02) 466-4227	일산중앙	031) 960-3786	판교	031) 8016-8677
광교영업부	02) 777-1559	문정역	02) 449-0808	신제주	064) 743-0754	전북	063) 286-9911	평촌	031) 386-0583
노원	02) 937-6782	부산서면	051) 243-3070	안산	031) 485-4481	종로	02) 722-4650	평택	031) 657-0136
대구	053) 944-0120	산본중앙	031) 396-5094	울산	052) 261-6127	종로중앙	02) 712-7106	포항남	054) 252-0370
대구워브더제니스	053) 790-8557	서여의도	02) 3775-2341	월배	053) 793-6797	창원	055) 285-5500		

PWM闪存

강남	02) 508-2210	목동	02) 2649-0101	서울FC	02) 778-9600	이촌동	02) 3785-2536	부산	051) 819-9011
강남대로	02) 523-7471	반포	02) 3478-2400	서초	02) 532-6181	인천	032) 464-0707	PVG강남	02) 559-3399
광주	062) 524-8452	방배	02) 537-0885	스타	02) 2052-5511	일산	031) 906-3891	PVG서울	02) 6050-8100
대구	053) 252-3560	분당	031) 717-0280	압구정	02) 541-5566	잠실	02) 2143-0800		
대전	042) 489-7904	분당중앙	031) 718-5015	압구정중앙	02) 547-0202	태평로	02) 317-9100		
도곡	02) 554-6556	서교	02) 335-6600	여의도	02) 782-8331	해운대	051) 701-2200		

해외한국법인/사무소

뉴욕 (1-212) 397-4000 | 홍콩 (852) 3713-5333 | 상해 (86-21) 6888-91356 | 호치민 (84-8) 6299-8000 | 호치민 사무소 (84-8) 3824-6445
인도네시아 (62-21) 5140-1133



ŠQÑ Ā
² `ù& Ôa"³ ÈD ý



p \$ P N Q M J B O D E / B U J D F

? W pñD ŠÑ Žæ lúÀ 'Ž ³ šÝ, TMò üžì 'Ž ³øüW> v>y ŠÑá Žæl ¹5t v>D|8 •&äÀ S-
-•à Øyx x š-(È...:- SÑ <#äî
üW x šÝ %Ž Å šÝ %ŽD ,>DÅÀ à 'Ž ³øüWD D|8 • d ÈÔpŠ S5a lx W ••L d &|À²D D|
Å v•-y² *x-ì ß0> È¤á u S5t HW3 ,(á ~xI fäÄ HWWD HWxñÀ 5Š> :x • ••8 ~x5y pŠ
S#äî
nÄ² TM~D ¶ la HWD mTM~•7 HWW W(D xñ5y p&Ý ÄÉäî
'Ž ³W x üZ ŠQÀ àpÈ Ó":x W y -•à f Å(üZD öA¹I Ž È dÓ" < û ¹#äî



p H W a Ù TM L x

< TM ~ >	< Å >
R û ñ1 P ûJ+I Iš	:º , TMr 'á; Ñ , S\D HWD &>h~ Ý³5y Rû :ºI «8 f
5SBEJOH #6: ñ1 P ûJ+I -	º@ , TMr 'á; Ñ , S\D HWD &>h~ Ý³5y º@xL f
º@ ñ1 P ûJ+I -	wx , TMr 'á; Ñ , S\D HWD &>h~ Ý³5y 3FEVDF> Áà f
wx ñ1 P ûJ+I Iþ	

XXX TIJOIBOJOWFTU DPN

신한금융투자